

하이에크의 市場秩序와 競爭에 관한 考察

朴 祥 洙*

目 次

- | | |
|---------------|-------------------|
| 1. 序 論 | 1) 知識의 分散과 經濟問題 |
| 2. 市場秩序의 意義 | 2) 實踐的 知識의 特徵的 性格 |
| 3. 互惠的 目的 | 3) 知識의 分業과 價格機構 |
| 1) 自發的 交換의 惠澤 | 4) 發見節次로서의 競爭 |
| 2) 經濟的 相互依存性 | 5) 競爭과 獨占 |
| 3) 經濟政策의 目標 | 5. 結 論 |
| 4. 實踐的 知識과 競爭 | |

1. 序 論

자발적 사회질서(spontaneous social order)에 관한 하이에크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 사상에 기초한다.¹⁾ 즉 인간의 지식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認識論的 思想, 社會制度進化論 및 自由主義思想.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장질서(market order) 역시 자발적 사회질서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하이에크의 시장질서에 관한 주장 역시 앞에서 언급된 세 가지 사상에 관한 완전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인식론적 사상과 자유주의사상에 초점을 맞춘다. 본고는 시장질서를 통해서 개인의 지식의 불완전성이 어떻게 극복되며, 그에 따라 불완전한 지식의 효율적인 활용이 어떻게 도출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활용을 가능케 하는 경제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하는가 등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본고의 내용은 자원배분의 기준, 즉 효율성과 공정성 중에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시장질서에 관한 완전한 논의를 위해선 공정성의 문제(즉 시장질서가 개인적 자유 및 분배적 정의와 모순되지 않는가와 같은 사회철학적 논의)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지면관계로 검토되지 못했다.

* 濟州大學校 經商大學 經濟學科 教授

1) 하이에크의 자발적 사회질서에 관한 내용은 拙稿, 「하이에크의 自發的 社會秩序에 관한 一考察」(제주대, 논문집, 1991. 12.)를 참조하시오.

2. 市場秩序의 意義

우선 시장질서의 개념부터 검토하고 넘어 가자. 시장질서는 자발적 사회질서의 한 부분으로서 개인들의 意圖的인 經濟行爲의 結果이지만, 개인들의 意圖와는 상이한 結果를 낳는다. 이런 질서는 어떤 다른 방식에 의존해서 행동하는 경우보다 모든 사람 각자에게 다양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더 커다란 支配를 가능케 하는 展望이나 機會를 부여하기 때문에, 시장질서는 우리들 각자의 목적에 봉사한다. 시장에서의 相互調整的인 인간행동은 期待一致의 정도를 더 높이고 또한 약간의 期待 失望이란 희생하에서, 다수 구성원의 知識과 熟練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케 한다.

하이에크는 시장이 발생시키는 질서정연한 구조를 *catallaxy*(交換經濟)라 하였다.²⁾ 이런 *catallaxy*는 組織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그리고 특별한 구체적 목표의 하이어나키(예컨대 분배적 정의)를 달성하는 데 봉사하지도 않는다. 소위 “市場은 개인의 목적에 대한 특별한 機會나 가능성에 대한 그 자신의 知識을 개인들로 하여금 활용하게끔 유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어떤 한 개인에게 접근 불가능한 分散된 知識을 사용 가능케 하는 全般的 秩序가 성취된다”³⁾. 그 결과 분산된 지식의 활용으로 인하여 생산물의 총량이 극대화되고 또한 시장에 의한 요소가격의 결정을 통하여 그 생산물이 배분된다. 물론 이 때 어떤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시장을 통해 최저소득을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市場 外的으로(예컨대 정부정책에 의해서) 보조하는 정책적 수단의 채택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⁴⁾ 그러나 유의할 사항은 분배적 정의라는 전체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질서에 간섭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배분될 수 있는 총생산량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3. 互惠의 目的

시장질서의 가장 특징적인 성격 가운데 하나는 시장이 구체적인 또는 특별한 공동목적은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질서는 개개인이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질서이며, 그리고 그런 질서는 또한 개개인의 목적 성취에 봉사한다. 환언하면 시장질서는 개개인의 목적추구과정에서 나타나는 意圖되지 않은 結果이지만, 그런 질서가 존속하게 되는 이유는 그런 질서의 존재로 인하여 개인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질서의 존재와 개인의 존재는 원인과 결과간의 관계로서 규정지을 수 없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시장질서에서

2) Hayek, F. A. (1967): "The Confusion of Language in Political Thought", in Hayek, F. A., ed. (1978):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p.90.

3) *Ibid.*, p.91.

4) 앞에서 인용된 拙稿, pp. 339-42를 참조하시오.

발생하는 자발적 교환의 혜택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검토하고, 이런 이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선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자.

1) 自發的 交換의 惠澤

시장질서의 가장 커다란 혜택은, 비록 모든 사람 각자가 추구하는 공동목적에 대해서 서로 同意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고 또한 서로 혜택을 호혜적으로 부여한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공동목적 없는 상태에서 그런 평화적인 협력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계기는 교환제도의 채택이다. 교환은 상이한 사람이 동일한 재화를 상이한 용도에 사용한다는 단순한 사실로부터 발생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재화를 인도하는 대가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재화를 얻는 경우에 양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다는 단순한 사실로부터 발생한다. 여기서 필요시되는 規律은 私有權의 認定과 契約의 履行 등과 같은 慣習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거래와 연관되는 共同目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⁵⁾

이런 교환의 과정에서 교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또한 그들의 욕구와 목적이 상이하면 할수록 교환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더욱 더 커진다. 특히 물물교환이 아닌 화폐경제에서는 교환의 상대자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교환의 참가자들은 각각 다른 참가자의 욕구충족에 기여한다. 어쩌면 만약 우리가 그런 욕구에 대해서 안다면 특정인의 욕구충족에 반대하였을지도 모르는 그런 욕구충족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만약 협조가 공동목적을 전제로 한다면 상이한 목적을 갖는 사람들은 동일한 재화나 수단에 대해서 상호간에 투쟁하는 敵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환제도의 도입은 공동목적에 동의함이 없이도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협조하게끔 유도한다.⁶⁾

시장질서 혹은 catallaxy에 관한 중요한 핵심은 개인이 이기적이든 아니든간에 시장이 상호간에 크게 다룰 수 있는 상이한 지식과 상이한 목적들을 서로 조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나 利己心과 分業에 의해서 國富의 크기가 가장 최대화될 수 있다는 견해는 매우 제약적인 견해이다. 왜냐하면 분업은 기업과 같은 조직내에서도 얼마든지 성취될 수 있으며, 그리고 자발적 질서의 이득은 통상적인 관점에서 이기적인 사람들에만 의존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시장질서의 목적은 구체적인 내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공동목적 없이도 개개인의 특별한 지식에 의해서 각자의 특별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고양시키는 抽象的 秩序의 형성과 같은 순수한 도구적 성격을 갖는다. 즉 시장질서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현할 수 없는 추상적 질서의 형성이다.⁷⁾

5) Hayek, F. A. (1976);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2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p.109.

6) *Ibid.*, pp.109-110.

7) *Ibid.*, p.110.

2) 經濟的 相互依存性

물론 자발적 사회질서내에는 비경제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목적의 평화적인 조화를 가능케 하는 것은 시장질서이며, 이런 시장질서를 통해서 모든 혜택이 인간에게 돌아간다. 모든 인간 또는 전세계 인류의 상호의존성은 경제적 관계에만 의존하지는 않지만, 그런 의존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시장질서의 효과이다. 즉 국내에서 시장을 통한 개개인의 목적의 상호조정 에 의해서 상호의존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류간의 상호의존성 소위 "세계는 하나다" 라는 구호도 시장관계의 연결을 통해서 가능하다.

개개인의 행동목적은 일반적으로 비경제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이런 비경제적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특정한 용도에 사용한다. 소위 모든 경제적 활동은 한정된 수단의 용도를 결정함으로써 競爭的 目的들을 조화롭게 만든다. 물론 이것은 경제적 목적이 다른 목적에 우선한다든가, 모든 현상을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든가 혹은 경제적인 공동목적이 존재한다든가 등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手段關係(means-relation)를 의미하며, 그리고 상이한 궁극적 목적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어떤 합의도 없이 또한 단지 기본 원리인 호혜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런 목적들이 잘 알려진 방법인 시장기구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⁸⁾

3) 經濟政策의 目標

경제정책은 특정한 결과를 추구하기 위해서 시행되어선 안되며, 그리고 상이하면서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은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려는 개개인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시키는 그런 성격의 抽象的인 全般的 秩序(abstract overall order)를 확보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사회에서 경제정책의 목표는 성공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사회의 각 구성원의 機會를 同等하게 증가시키는 것이며, 또한 強制力(coercion)의 사용도 각 개인의 기회를 개선시키는 경향을 갖는 그런 規律의 시행에 한정하여야 한다.

시장질서는 공동목적은 갖지 않으며 또한 개개인의 특별한 목적과 그들의 욕구도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개개인의 목적과 욕구를 호혜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하여 경제정책은 시장을 가능한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특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황의 변화 등을 우리의 지식으로선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정책은 모든 순간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람들까지 포함한다)의 機會를 증대시키는 시장질서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8) *Ibid.*, pp. 112-3.

4. 實踐的 知識과 競爭

하이에크의 경제학에서 중요한 핵심적 특징은 지식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적으로 분산된 단편적이면서도 불완전한 지식의 활용문제가 경제문제의 중요한 핵심이다. 여기서는 분산된 지식과 가격기구 나아가서는 경쟁과의 관련을 검토한다.

1) 知識의 分散과 經濟問題

경제문제의 특징적 성격은 정확히 다음의 사실에 의해 규정된다: “우리가 활용해야 할 주위환경에 관한 우리의 知識은 응집된 또는 통합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모든 별개 개인들에 의해 보유된 불완전하고 또한 종종 모순된 소량의 분산된 지식의 형태로 존재한다”⁹⁾. 만약 경제문제가 단순히 주어진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문제라면, 경제문제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選擇에 관한 論理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건은 결코 불변적이 아니고, 主觀的이며 可變的이다. 그리고 개개인은 자원의 용도와 자원의 사용목적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경제문제는 개개인이 부여하는 목적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개개인에게 알려진 자원의 최선의 활용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달리 표현하면 “그것「경제문제」은 전체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개인간에 분산된」 知識의 活用的 問題이다”.¹⁰⁾

아담 스미스가 ‘勞動의 分業’(division of labor)을 중시한다면, 하이에크는 ‘知識의 分業’(division of knowledge)을 중시한다. 중앙당국의 계획에 의해서는 개개인에게 분산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또한 계획에 의해 나타난 결과는 개개인의 욕구 및 목적과 상충되거나 혹은 경제적 파국을 몰고 올 수 있다. 왜냐하면 계획의 당사자 또는 그 집단은 개개인의 욕구와 목적들을 상세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개인에게 분산된 지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2) 實踐的 知識의 特徵的 性格

개개인에게 분산된 소량의 단편적인 지식은 實踐的 知識(practical knowledge)이며, 그것은 理論的 또는 技術的 用語(theoretical or technical terms)로 표현 불가능한 熟練, 習慣 등의 형태로 개개인의 행동에 體化된 知識이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지식은 그 본질상 통계학적으로

9) Hayek, F. A. (1945):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35. Reprinted in Hayek, F. A., ed. (1948):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77.

10) Ibid., p. 78.

집계될 수 없으며 또한 어떤 중앙계획당국에게 통계적 형태로 전달될 수도 없다.¹¹⁾ 이런 실천적 지식은 세 가지 특징적 성격을 갖는다.

첫째, 실천적 지식은 客觀的 知識도 아니고 또한 주어진 지식도 아니며, '私的인 知識'(private knowledge)이다. 따라서 이런 성격의 지식은 외부적으로 관찰되거나 혹은 통계적으로 추계될 수도 없고, 단지 개인에 의해 보유되는 지식이며 개인에 따라 상이한 내용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실천적 지식은 理性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感覺的 知覺에 의해 획득되는 '經驗的 知識'(empirical knowledge)이다. 따라서 이런 지식은 불변적일 수 없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변적이며 또한 完全한 情報가 아니다. 특히 개개인에 따라 경험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경제분석에서 모든 개인의 지식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이다. 셋째, 실천적 지식은 사적이고 경험적인 속성을 갖기 때문에, 이론적 또는 기술적 용어로 표현 불가능한 '暗默的 知識'(tacit knowledge)이다. 특히 하이에크는 '노우 하우'적 성격의 지식을 강조한다. 이런 성격의 암묵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선 결코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시간소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특정한 개인이 보유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며, 그런 지식의 전달은 불완전하다.¹²⁾

3) 知識의 分業과 價格機構

지식은 개개인에게 단편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또한 그런 지식의 전달도 완벽하지 못하다. 결국 어떻게 하면 이런 단편적 지식을 사회 전체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관한 문제로 귀결한다. 즉 지역적인 지식을 개개인으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활용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개인의 지식은 특별한 조건, 특별한 환경, 다른 사람들에 관한 지식 등으로 구성되며, 개인은 이런 지식에 의존해서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 그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한히 많으며, 또한 그의 행동의 효과도 무한히 많다.

그러면 개인의 특별한 지식에 입각한 행동이 개인들간에 상호조정되겠는가? 하이에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적절한 사실들에 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간에 분산된 체제에서는, 主觀的 價値가 개인들로 하여금 그의 계획의 부분들을 조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價格은 기본적으로 상이한 사람들의 별개의 행동들을 상호조정하도록 작용할 수 있다."¹³⁾ 자신의 지식에 입각한 개인의 행동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意圖 또는 計劃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그런데 시장에서의 價格은 개인들의 상이한 계획을 조화롭게 만듦으로써 개인들간의 期待一致를 가능케 한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개인의 의도가 그대로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 失望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제도에 비해서 가격기구는 인간이 창조한 제도 중에서 지식의 분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시키는 제도이다.

11) Ibid., pp.81-3. 지식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拙著(1988), 「Friedrich A. von Hayek의 經濟學方法論과 이에 따른 貨幣理論의 再構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제2장 제2절을 참조하시오.

12) O'Driscoll, G. P. Jr. and Rizzo, M. J. (1985); *The Economics of Time and Ignorance*, pp.102-5.

13) Hayek, F. A. (1945), *op. cit.*, p.85.

하이에크는 價格機構를 '情報疏通을 위한 機構'(a mechanism for communicating information)로 간주한다.¹⁴⁾ 즉 가격을 많은 사람들의 의도와 욕구를 반영하는 기구로 간주한다. 따라서 어떤 한 개인이 행동할 때 그는 이런 가격들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의도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는 지식의 분업, 즉 각개인의 지식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가격기구의 기능은 완벽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가격과 시장은 고립된 체계가 아니라, 사회체제의 한 부분이며, 그 체제는 가격 이외의 여러 가지 신호(signal)와 규율을 양산한다. 가격은 비가격적인 요인, 예컨대 개인의 의도, 욕구, 환경적 제약 등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그리고 이런 가격들이 변한다는 것은 이런 가격들이 비가격적인 요인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¹⁵⁾

4) 發見節次로서의 競爭

경제학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특정한 현상에 핵심적이며 항구적인 사항이 분석의 한 부분이 되도록 추상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완전경쟁이론은 過程에 관한 이론(theory of process)이 아니라 狀態에 관한 이론(theory of state)이다. 따라서 하나의 경쟁적인 균형으로부터 다른 균형으로의 調整過程(adjustment process)에 관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¹⁶⁾ 그러나 실제의 행동주체들은 최초의 균형상태와 최종적인 균형상태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은 끊임없는 조정과정(never-ending adjustment)에 꾸준히 대처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경쟁이론은 바로 이런 조정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그럴 경우에만 그 이론은 경험적 내용을 갖게 된다.

생산자간의 경쟁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경쟁은 시장과정의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왜냐하면 經濟情報가 시장에서 가격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며 또한 가격을 통해서 그런 정보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가격기구를 통한 지식의 분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재화생산에 있어서도 보다 저렴한 투입물의 결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필요로 하는 재화를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할 수 있다. 즉 경쟁은 比較靜學的 意味를 갖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그런 변화에 꾸준히 적응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그리고 경쟁은 시장에서 개개인이 갖는 다양한 기호와 선호를 생산자로 하여금 발견하도록 허용하고 또한

14) *Ibid.*, p. 86.

15) *Ibid.*, p. 87.

16) 기존의 완전경쟁이론에 대한 하이에크의 비판은 Hayek, F. A. (1946): "The Meaning of Competition", a lecture delivered at Princeton University. Reprinted in Hayek, F. A., ed. (1948). *op. cit.*, pp. 92-106을 참조하시오.

가능한 한 가장 낮은 비용으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투입물의 여러 가지 결합을 발견 가능케 한다. 결국 경쟁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질 수 없거나 또는 적어도 활용될 수 없었던 그런 사실들의 發見節次(discovery procedure)가 바로 경쟁이다.¹⁷⁾

시장에서 필요한 지식은 특별한 환경 및 그 변화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구성되는데, 기존의 완전경쟁에서처럼 이미 알려진 지식 또는 完全한 情報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의 그런 능력은 미비하며, 그 결과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하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재화 혹은 용역이 필요시되는지 또한 그런 용구의 충족이 어느 정도의 긴급을 요하는지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고, 가격을 통한 경쟁에 의해서만 발견 가능하다.

5) 競爭과 獨占

경쟁이 단편적인 지식의 활용을 위해선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현실적으로 독점 혹은 과점이 일상적으로 존재하며, 그 결과 경제력의 집중현상이 나타난다. 經濟力의 集中은 物的資源에 대한 지배력과 다른 사람들의 (市場)行爲에 대한 지배력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 지배력은 구분되어야 한다.¹⁸⁾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독점이 발생하는데, 그렇지만 더 개선되고 더 염가인 재화가 생산되거나 또는 보다 바람직한 재화가 생산된다면 그런 독점은 바람직하다. 예컨대 비록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로 형성된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재화의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킨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격이 다른 경쟁자가 제시할 수 있는 가격보다 더 낮다면 그런 가격은 바람직하며, 또한 우리는 그런 독점기업을 비난할 수 없다. 따라서 우월한 경제적 성과의 결과로서 물질 자원에 대한 지배력이 증가하고 또한 독점이 출현한다고 하면, 그런 현상은 결코 유해하지 않다. 왜냐하면 물질자원에 대한 지배력의 증대는 보다 더 높은 경제적 효율을 달성 가능케 하며, 반면에 이런 지배력의 증대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장)행위에 대한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점의 문제점은 競爭의 抑制로 대변되는 다른 사람들의 (시장)행위에 대한 지배력의 증대에 있다. 비록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로 독점이 출현한다고 할지라도, 독점의 문제는 그런 優越性의 消滅 후에도 독점적 지위를 보호 내지는 유지하려는 경향이다. 즉 독점자들은 그들이 시장에서 설정하는 가격에 대한 지배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가격에 대한 지배력은 다른 사람들의 시장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리고 특히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른 潛在的 競爭者들의

17) Hayek, F. A. (1968): "Competition as a Discovery Procedure", a lecture delivered at Chicago. Reprinted in Hayek, F. A., ed. (1978), *op. cit.*, p. 179.

18) Hayek, F. A. (1979):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3 *The Political Order of a Free People*, p. 80.

進入을 억제하거나 혹은 완전히 차단시킨다.¹⁹⁾ 결국 독점의 문제점은 경쟁의 억제에 있다.

그러나 비록 그런 독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상당수의 獨占規制法은 독점 그 자체보다도 더 유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독점규제법은 경쟁의 억제를 방지하고 또한 公正去來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법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수많은 예외를 허용하게 되고, 그 결과 원래의 의욕적인 목적이 그런 예외들로 인하여 퇴색된다.

5. 結 論

시장질서에 관한 하이에크의 주장은 개개인에게 단편적으로 분산된 지식의 효율적인 활용, 즉 지식의 분업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이 소유한 지식은 예컨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물적 자원에 관한 지식, 자신의 기능적, 기술적 혹은 과학지식적 능력에 관한 지식, 자신의 욕구에 관한 지식 등과 같이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알려진 지식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욕구, 다른 사람이 소유한 인적 혹은 물적 자원에 관한 지식, 생산기술에 관한 지식 등은 대단히 미약하다. 즉 개인이 소유한 지식은 대단히 단편적이면서도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선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안다.

이런 불완전하고도 단편적인 지식의 효율적인 활용은 시장을 통해서 특히 시장에서의 경쟁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하이에크적 관점에서 개인에게 분산된 지식의 효율적 이용, 즉 지식의 분업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물론 개인이 보유한 지식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神이 존재한다면 논리학에 의해서 또는 계획경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와 같이 전지전능한 神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와 같은 완벽한 자원배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시장에서의 가격기구를 통한 지식의 분업 역시 가장 최적인 자원배분을 성취시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개인이 보유한 지식은 가격에 반영되며 그리고 그 가격이 신호(signal)로서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데, 현실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지식이 완전히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또한 그 가격이 개인의 의사결정에도 완전히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의 불완전성에서 오는 결과이며, 또한 가격기구도 완벽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그리고 개인이 보유한 지식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발견할

19) *Ibid.*, p. 84.

수 있다. 경제정책은 지식의 분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개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만약 강제력이 사용된다면 그 강제력은 전반적인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강제력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화폐제도의 정비와 화폐가치의 안정, 도량형제도의 확립 등.

강제력의 사용과 관련하여 강제력의 사용이 극히 자제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독점에 대한 규제이다. 독점의 장단점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잘 알려져 있는데 독점의 폐해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독점을 규제하려는 독점규제법 등은 오히려 독점 자체를 그대로 놔두는 경우에 비해서 더 옳지 못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여기서는 검토되지 못하였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거의 유사하다. 독점에 대한 규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실행되어야 하며, 그런 실행이 개인적 자유를 되도록 신장시키면서 또한 동시에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